

안산시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이 **안산톡톡**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 안산톡톡(talktalk) : 톡톡(talktalk) 튀는 이야기(talk)가 가득한 톡톡(talktalk)한 소식지!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02-03 도서관으로 떠나는 '북캉스'

안산시 도서관의 다채로운 여름 특집프로그램

8월에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독서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영화감상도 즐길 수 있으니 이번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도서관에서 지식도 쌓고 추억도 만들며 알차게 보내자!

05 우리가 낸 세금은 어떻게 써야할까?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개최

안산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각 동에서는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열리고 있다.

04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

가족 · 연인과 함께하는 나들이 명소

고잔역 철도 유휴부지에 들어선 Station-A에는 커피공방, 스테인드글라스, 수제 캔들, 한지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공방이 입주해있다. 단순 판매에서 그치지 않고, 체험 프로그램 제공과 동시에 포토존 역할까지! 안산시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거듭나려 한다.

14 안산에서 여름을 즐기는 방법

단원미술관 여름기획전 & 여름미오페스티벌

오전에는 미술관에서 한국현대미술을 감상하고, 오후에는 친구 · 가족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주말 하루를 알차게 보내자!



‘읽고, 보고, 즐기고’ 폭염·장마 피해 동네 도서관에서 여름 즐기기

무더운 여름철 하루쯤은 집 앞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평소 도서관을 찾지 않더라도 책을 즐겨 읽지 않더라도 도서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평소 읽고 싶었던 책, 또는 흥미 있어 보이는 주제의 책 한 권을 골라 도서관 한 구석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온종일 파문혀보는 것도 여름을 보내는 한 방법이다. 폭폭 찌는 폭염으로부터의 탈출은 덤이다.

안산시는 방학 시즌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풍성한 이벤트와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을 맞고 있다. 다양한 책과 독서하기 좋은 분위기는 기본, 평소 접하기 힘든 작가들도 만날 수 있는 강좌도 준비됐다. 먼 피서지보다 무료로 손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다양한 책에 쾌적한 분위기! 휴양지가 따로 없어요

안산시 도서관은 1993년 7월30일 관산도서관이 최초 개관한 이래 현재 30곳에 달한다. 여기에 시의 지원을 받는 사립작은도서관을 포함하면 시 곳곳에 모두 80곳에 이른다. 집에서 10분이면 시민 모두가 책속에 파문힐 수 있는 환경이다. 피악별이 쏟아지는 폭염에서도, 비가 오는 장마철에도, 시내 곳곳에 있는 도서관은 언제나 쾌적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매년 200만여 명의 시민이 찾는 시 공공도서관에는 168만9천900여 권의 책이 마련돼 있다. 안산시 인구대비 1인당 2.37권에 이르는 수치다.

영어·미디어교육이 특화된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에는 전자책 보유량이 1만3천여 권에 달하는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비도서 자료도 6만개에 달한다. 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1인당 한 달에 최대 5권까지 희망도서를 신청 받아 구매하고 있으며 영어 교육이 특화된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를 통해서도 영어 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가 750여 권 마련됐으며, 오디오북과 큰활자본 도서도 공공도서관에 각각 9천697권, 4천718권이 마련돼 있다.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는 지역서점 바로대출, 상호대차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전체 공공도서관의 열람석 규모는 2천355석에 달한다. 관산도서관이 536석으로 가장 많으며,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 성포도서관이 각각 526석, 418석, 356석 규모로 뒤를 잇는다.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도 100석 이내의 열람석이 마련돼 쾌적하게 책을 읽거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만큼 개개인 모두에게 만족스런 환경을 제공하기는 어렵겠지만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자료와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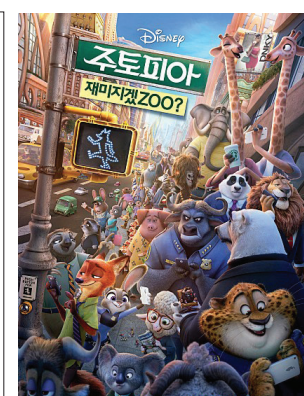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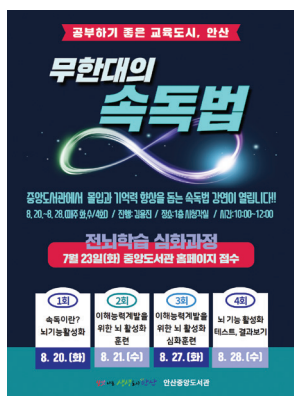
책만 읽는 도서관은 그만...

여름 휴가철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 ‘풍성’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행사 외에도 성인을 위한 행사가 8월 중 진행된다. 중앙도서관은 8월27일 오후 7시 청소년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김용섭 칼럼니스트의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강연을 진행한다. 8월 인문학 열두마당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세대별 트렌드와 성향을 알아보고 이해를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성포도서관은 8월31일 ‘50(+)을 위한 심리학 수업’을 개최, ‘5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자기 이해 심리학’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한다.

가족단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술공연도 준비됐다.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는 8월8일 ‘헬로포터의 신비한 마법학교’ 공연을 진행한다. 영화 해리포터의 세계관과 콘셉트를 활용한 스킨오프 마술공연이다. 8월17일 대부도서관에서는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각색한 가족 공연 프로그램이 준비돼 시민들을 맞는다. 단원어린이도서관은 8월6일부터 9일까지 여름방학특강 ‘영어동화친구 I LOVE STORY’를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그림책 수업도 진행한다.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극장을 벗어나 도서관에서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시청도 할 수 있다.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는 8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를 상영하며, 본도서관도 8월 21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애니메이션 ‘코코’, ‘주토피아’ 등을 상영한다. 중앙도서관은 8월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호러영화 상영회를 운영, 가족 단위의 시민들에게 오싹한 공포를 선사한다. 이밖에도 안산시 공공도서관 곳곳에서 주말 등을 이용한 영화 상영회가 예정됐으니,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이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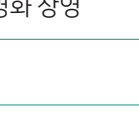




강 연					
행사명	일시	대상	주요내용	장소 및 문의	
8월 인문학 열두 마당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2019. 8. 27.(화) 오후 7시~9시	성인 100명	세대별 각자의 트렌드와 성향을 알아보며 이해를 도움	중앙도서관(481-3868)	
8월 부모학교 '혼자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	2019.8.20.(화) 오전 10시~12시	시민 80명	내 아이의 숨은 공부능력을 찾아내는 혼자공부법의 모든 것	관산도서관(481-3853)	
전뇌학습 심화과정 '책 빨리 읽기'	2019.8.20.~8.28. (매주 화·수/4회, 오전 10시~12시)	시민 50명	몰입과 기억력 향상을 돕는 속독법	중앙도서관(481-3868)	
길 위의 인문학 3차 '도자기에 담은 삶'	2019.8.22./8.27./8.28. 오전 10시~12시	시민 30명	고려시대 청자의 발생과 변천 등 도자기에 대한 강연 및 탐방	관산도서관(481-2754)	
50(+)를 위한 심리학 수업	2019.8.31.(토) 오후 2시~4시	시민 50명	5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자기 이해 심리학	성포도서관(481-3775)	
여름방학특강 '우뇌속독 5분에 책 1권 읽기'	2019.8.6.(화)~8.8.(목) 오전 10시~12시	시민 80명	우뇌를 활용한 빠른 책읽기	관산도서관(481-3853)	

공 연				
행사명	일시	대상	주요내용	장소 및 문의
헬리포터의 신비한 마법학교	2019. 8. 8.(목) 오후 5시30분~6시 30분	가족단위 시민 100명	영화 헬리포터의 세계관과 콘셉트를 이용한 스텝오프 마술공연	안산미디어 라이브러리 (481-3890)
대부도서관 8월 가족 공연 '헨젤과 그레텔'	2019.8.17.(토) 오후 3시~4시	시민 60명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각색한 가족 공연 프로그램	대부도서관(481-3956)
8월 문화가 있는 날 국악놀이극 '두더지가'	2019.8.21.(수) 오후 7시~8시	시민 80명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각색한 국악 놀이극으로 어린이들에게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전래동화 이야기	관산도서관(481-3854)

독서 프로그램					
행사명	일시	대상	주요내용	장소 및 문의	
2019년 방학특강 '여름나기 계절밥상'	2019. 8. 19.(월) ~ 8. 20.(화)	성인 15명 유초등 27명	24절기 중 '처서' 관련된 요리수업	달미작은도서관(481-3750)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연놀이와 만난 그림책'	2019. 8. 27. ~9.4.(화,수) 오후 2시~5시	유아 6~7세 10명 초등 1~2학년 10명	자연과 생태계에 관한 동화책을 읽고 만들기 및 놀이로 체험	성포도서관(481-3775)	
여름방학특강 '나는야 꼬마 건축가!'	2019.8.1.(목)~8.2.(금) 오후 3시~5시 30분	6~9세 10명 초등 3~6학년 15명	건축과 관련된 그림책을 함께 읽고 초가집과 기와집 만들어보기	단원어린이도서관(481-3857)	
초등 고학년 여름방학특강 '대한민국만세'	2019.8.12.~8.14.(월~수) 오전 10시~12시	초등 3~5학년 20명	항일의병운동, 국권상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에 관한 역사 수업 진행	상록어린이도서관 (481-2675) 	
초등 저학년 여름방학특강 '대한민국만세'	2019.8.12.~8.14.(월~수) 오후 2시~4시	초등 1~2학년 20명	태극기 만들기, 역사인물 북아트 등 역사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 진행		
유아 여름방학특강 '대한민국만세'	2019.8.12.~8.14.(월~수) 오후 4시 10분~5시 40분	유아 6~7세 15명	무궁화 지도만들기, 유관순 북아트 등 역사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 진행		
선부도서관 방학특강 '어린이 전통 생활 매듭'	2019.8.13./8.14, 8.20./8.21 오후 2시~4시	초등3~6학년 15명	다양한 매듭기법을 배우고 실생활에 활용	선부도서관(481-3886)	
여름방학특강 '내꿈★찾기-직업체험판'	2019.8.13.~8.21.(매주 화·수) 오후 2시 30분~4시	초등 2~6학년 16명	특정 직업의 유명한 인물과 관련된 도서를 읽고,독후활동과 직업체험활동을 통한 진로탐색프로젝트	단원어린이도서관(481-2679)	
팝업행사 '가정통신문 소동'	2019.8.21.(수) 오후 2시~3시 반, 4시~5시 30분	어린이 및 학부모 30팀	안산의 책 '가정통신문 소동'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 진행	중앙도서관(481-3866)	
선부도서관 상담&책추천 '책처방 프로그램'	2019.8.22.(목) 오전 10시~ 오후 1시	청소년 및 일반인 10명	수강자들의 고민을 나누고 고민을 해결하는 책을 추천하는 고민상담 수업	선부도서관(481-3886)	
여름방학특강 '자연놀이와 만난 그림책'	2019.8.22.(목)~8.23.(금) 오후 4시~5시 30분	초등 1~3학년 12명	그림책을 읽고, 꿀벌과 나무 등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다양한 독후활동	단원어린이도서관(481-2679)	
2019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활동 '도토리 삼형제의 안녕하세요'	2019.8.28.~9.4.(수) 오후 4시~6시	유아 6,7세 12명	그림책 저자인 작가와 직접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 진행	본오3동만화작은도서관 (406-8473)	
여름방학특강 '영어동화친구 I LOVE STORY'	2019.8.6.(화)~8.9.(금) 오후 1시~오후 3시 40분	초등 1~2학년 15명 초등 3~4학년 15명 유아 6~7세 15명	영어그림책을 함께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영어와 친해지기	단원어린이도서관(481-3857)	
가족 인문학 캠프 '우리는 패밀리'	2019.8.7.(수) 오후 7시~9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20팀	독서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며 이해하는 인문학 캠프	중앙도서관(481-3868)	

영화 상영					
행사명	일시	대상	주요내용	장소 및 문의	
8월 영화 '해리포터'와 함께~	2019. 8. 3.~8. 31.(매주 토, 5회) 오후 2시~4시	시민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상영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481-3890)	
여름방학맞이 영화상영	2019.7.24.~8.21.(수) 오후 2시~4시	어린이 및 가족	'코코', '주토피아' 등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	본오도서관(481-3700)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상영	2019.7.24.~8.21.(수) 오후 2시~4시	시민 50명	여름방학 맞이 가족과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	반월도서관(481-2661)	
가족영화 상영 '호러호러 라이브러리'	2019.7.25.~8.8.(목, 3회) 오후 7시~9시	시민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호러영화 상영	중앙도서관(481-3341)	
여름방학 특선 영화상영	2019.8.10.~8.17.(토) 오후 2시~3시 30분	시민 100명	'알라딘', '라이온킹' 디즈니 애니메이션 토요영화 상영	상록어린이도서관(481-2675)	
토요영화상영	2019.8.3.~8.31.(매주 토) 오후 2시~	시민	매주 토요일 도서관이용자를 위한 영화상영	관산도서관(481-3884) 단원어린이도서관(481-2679) 선부도서관(481-3886) 대부도서관(481-3956)	
여름방학 특별영화상영	2019.8.4.~8.25.(매주 일) 오후 2시~	시민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8월 한 달 간 매주 일요일 영화상영	단원어린이도서관(481-2679)	



안산시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 (A : Ansan, art) 개소

‘무심코 지나친 고잔역의 변화’, 철도유희부지에 문화예술플랫폼 · 창업공간 들어섰다

1995년 수인선 협궤열차 운행이 중단된 이후 녹지로 남아있던 공간에서 새로운 모습의 ‘추억’을 만나 볼 수 있게 됐다. 지하철 4호선 고잔역 인근 유희부지와 하부공간에 옛 무궁화호 열차 2량과 이동식 모듈형 건축물 4개 동이 들어섰다. 철도를 달리던 디젤기관차형 무궁화호 열차는 안산시 청년예술인의 커피 · 문화예술공방 ‘Station-A’로 거듭났으며, 이동식 모듈형 건축물 ‘Station-G’에는 예비창업자 등 스타트업이 입주해 창업공간으로 활용된다.

추억 속 협궤열차 선로와 옛 무궁화호는 이제 지역 예술인의 창업 역량을 키워주고, 시민들에게는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Station-G는 안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큐브’와 마찬가지로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무심코 지나쳤던 고잔역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문화예술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무궁화호 열차

고잔역 인근 유희부지에 들어선 디젤기관차형 옛 무궁화호는 실제 철도를 달리던 열차다. 코레일로부터 사들인 철도 2량은 7월부터는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로 거듭나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Station-A의 A는 안산(Ansan)과 예술(Art)의 A를 따와 플랫폼의 정체성을 나타냈다.

이런 정체성처럼 Station-A의 조성 목적은 ▲청년 실업을 해소 · 창업 성공률 향상을 위한 공방창업 인큐베이팅 ▲폐 기차를 활용한 독창적 시설디자인에 따른 철도 인근 부지의 이미지 개선 · 도시재생 효과 ▲시민들의 문화놀이터 조성 등에 따른 지역명소화다. 수인선 협궤열차로 대표되는 안산의 과거와 새롭게 거듭난 현재의 문화예술플랫폼이 조화를 이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겠다는 것이다.

안산시는 Station-A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 커피공방 1개 팀과 문화예술공방 5개 팀 등의 입주를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는 기획전시 프로그램과 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커피공방 운영을 위해 입주한 ‘어쩌다 외출’ 팀은 단순한 커피 판매에서 그치지 않고, 샌드위치 · 쿠키 등 디저트도 제공한다. 커피공방은 64㎡(약 19평) 면적의 열차 1량에 위치하고 있다.

또 다른 열차에는 문화예술 5개 팀이 입주해있으며 포토존(기관사실)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도 마련돼 있다. ▲스테인드글라스(유리공예) ▲캔들 · 석고방향제 ▲한지토탈공예 ▲리본공예 ▲가죽 · 비즈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공방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활용한 조명, 소품 등을 주제로 한 공방을 운영할 ‘코코 유리소’는 온 · 오프라인을 통한 판매에도 나서며, 왕초급 · 초급 · 중급별 체험공방도 운영할 계획이다. 캔들 · 석고방향제 공방은 양초공예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Memoire’가 운영한다. 취미반 · 직장인반 등을 운영하며 안산시민의 문화휴식공간을 표방한다. 한지공예 공방을 운영할 ‘주하공방’은 기존의 전통공예를 탈피해 고객맞춤 소품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한지공예를 선보인다. ‘엘리스리본샵’은 핸드메이드리본을 주제로 한 원데이클래스와 온 · 오프라인 판매를 추진한다. ‘안산소식’은 가죽 · 비즈공예공방과 함께 복합문화교류를 위한 컨설팅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입주한 공방은 정

식운영자 모집 때 가점을 받게 되며, 시는 개인 또는 2~5인 이내로 구성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차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정식운영자를 향후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한 기업들은 시설 이용요금 및 관리비 무료 혜택과 함께 카페장비 · 공방 작업대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전문 컨설팅과 프리마켓 등을 통한 홍보,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도 있다.

Station-A의 커피공방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 외의 공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차를 이용한 시민은 고잔역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뒤 방문할 수 있다.

철도 하부공간에서 꿈꾸는 창업... 새롭게 들어서는 창업공간 ‘Station-G’

지하철 4호선 고잔역 하부공간에 모듈형 창업공간 ‘Station-G’가 들어섰다. 고잔역 바로 아래 1천100㎡ 부지에 설치된 모듈형 건축물 4개 동(441㎡)에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차 미만의 13개 창업팀이 입주했다.

건축물에는 북카페와 시제품제작소, 2개의 회의실, 개방형 창업공간 등 창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입주공간은 4인실부터 2인실까지 13개가 마련돼 창업인들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시제품제작소에는 3D프린터 4대와 레이저커터 등 첨단장비와 공구도 마련돼 있다.

Station-G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안산시는 조경,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도왔다. 안산시는 Station-G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창업자들의 우수 성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입주한 기업들은 3D프린팅, DSLR,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분야의 ‘Making(오픈교육)’을 비롯해 성장 단계별 창업교육 등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등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은 임대료 · 관리비 등의 부담 없이 최초 1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입주한 기업들의 업종은 ▲문화상품개발 ▲고효율플라스틱 발열시트 ▲VR컬러테라피 ▲스마트비전시스템 ▲IoT 기술 등 다양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교통수단으로만 이용되던 지하철 4호선 고잔역이 문화예술공방과 창업공간으로 거듭나 많은 기대가 된다”며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져 안산시를 알리는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예산, 주민들이 함께 세운다!”

주민참여예산제 근거,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안산시가 운영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시를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아이디어도 내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내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시민이 있을 수도 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다. 안산시는 2005년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시행한 이래, 201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분리 제정해 예산편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심의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왔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최근 각 동에서 실현되고 있다. 7월9일 상록구 일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동 주민참여예산 2차 지역회의’가 열렸다.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동네 분리수거 거점 만들기,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단속, 주민친화 공방체험장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안건들이 제안됐다. 이렇게 제안된 사업들은 담당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8월22일 ‘3차 지역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7월10일 단원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중앙동 주민참여예산 2차 지역회의’가 열렸다. 관내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는데 특히 경안고등학교 학생 3명이 청소년 위원으로 참여해 학교 옆 도로 인도 설치 요청 등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내기도 했다.

동별 지역회의에 앞서 안산시는 6월 28일 ‘2019년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어 위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하고 위원들 간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따라 이렇게 5월에서 8월 사이 각 동별로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동별로 제안사업이 선정되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통해 주민 및 지역회의의 의견들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이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지역별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방법 외에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올해에도 2020년 예산 반영을 위한 공모사업을 6월28일까지 접수 받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예산 반영을 위한 공모에서 채택된 의견들이 실제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산시 주민참여예산 담당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지역 주민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 발굴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니 앞으로도 주민들 모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문의 : 예산법무과(481-3028)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안산시민 10명 중 7명 ‘안산 살기 좋다’… 안산시민 대상 정책만족도 · 역점방향 설문

교통 · 관광 분야 정책 만족도 1위… 향후 역점 정책은 경제 · 일자리 꿈허

안산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현재 안산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며, 가장 역점을 갖고 추진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 · 일자리’ 분야를 꼽았다.

안산시가 정책연구 전문기관 (주)글로벌엔로컬브레인파크에 의뢰해 안산시민 1천131명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와 역점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거주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6%는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7.2%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40대(66.7%), 50대(63.0%), 20대(60.6%) 순이었다. 지역별로 상록구민은 73.1%, 단원구민은 63.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정책만족도 조사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경제 활성화 ▲교통 · 관광기반의 지속발전 도시 조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정책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개 분야 가운데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던 분야는 ‘교통 · 관광기반의 지속발전 도시 조성’이며, 응답자의 76.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64.8%가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응답자의 64.7%가 긍정적으로 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이 차지했다. 이밖에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행정’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정책’에 대해 각각 61.5%, 58.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1%가 ‘경제 · 일자리 정책’을 꼽았으며,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20.9%), 교통 · 환경 정책(19.3%), 교육정책(6.8%) 등



이 뒤를 이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안산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분야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7월11일부터 16일까지 안산시민 1천13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RDD) 방식의 ARS조사(유선전화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91%포인트다.

‘그라운드 환경 우수’ 와~스타디움 2019 1차 ‘그린 스타디움’ 선정 지난해 이어 2회 연속… 체계적인 관리 · 최적의 환경 제공



안산그리너스FC의 홈구장인 와~스타디움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한 2019 1차 ‘그린 스타디움(Green Stadium)’으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원큐 K리그 1~13라운드 기간 중 K리그 전 경기장의 그라운드 관리 상태를 평가, 울산문수축구경기장(K리그1)과 와~스타디움(K리그2)을 그린 스타디움으로

선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현장 실사와 실제 그라운드에 서 된 경험이 있는 각 클럽 주장, 경기감독관의 평가를 반영해 그린 스타디움을 선정한다.

2006년 11월 준공된 안산 와~스타디움은 2017년부터 안산그리너스FC의 홈구장으로 사용됐으며 안산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안산도시공사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라운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정은 최고 점수를 획득한 지난 시즌 종합 평가에 이어진 성과로 와~스타디움은 2회 연속 그린 스타디움 상을 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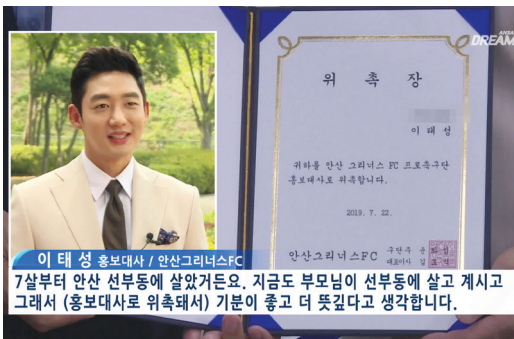
와~스타디움은 연면적 16만8천437㎡ 규모에 3만5천명을 수용하며, 2007년 3월28일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축구예선전으로 개장 소식을 알렸다.

국제공인 축구장 외에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공인규격의 육상트랙과 풋살장, 농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된 와~스타디움은 올 5월 열린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다.

◇ 문의 : 체육진흥과(031-481-2992)

배우 이태성

안산그리너스FC 홍보대사 위촉



안산시민구단 안산그리너스FC가 배우 이태성을 구단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7월22일 열린 위촉식에는 시 관계자들과 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우 이태성은 KBS2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과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에서 주연을 맡아 인지

도를 올리는 등 많은 작품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안산에서 태어난 이태성은 선부초등학교와 안산공업고등학교 야구부 활동을 펼치며 평소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도 부모님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인연을 통해 안산그리너스FC 구단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배우 이태성은 “어린시절 추억이 많은 안산시와 안산을 대표하는 안산그리너스FC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기쁘다”며 “가능한 자주 시민들 그리고 팬들과 만나고 싶다”고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감을 밝혔다.

MBC 새 주말드라마 ‘황금정원’에서 주연 역할로 안방극장으로 찾아갈 배우 이태성은 홍보대사로서도 안산그리너스FC 홈경기 및 안산시 주관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10월 개최

홈에서 우승 노리는 안산시

1천350만 경기도민의 축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도생활체전)이 올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안산시에서 펼쳐진다. 제30회를 맞는 올해 도생활체전은 31개 시·군 소속 선수와 임원 2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4개 종목(정식 20·시범 4)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와~스타디움을 중심으로 안산시 곳곳의 41개 경기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 가운데 축구, 배드민턴 등 10개 종목은 어르신부 경기가 따로 치러진다. 대회는 개최 도시 안산시가 포함된 15개 시가 1부로, 나머지 16개 시·군은 2부로 각각 나뉘어 경기가 치러진다.

안산시는 지난해 양평군에서 열린 제29회 도생활체전에서 1부 경기력 부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볼링·국학기공·육상 3개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축구·배구·자전거 3개 종목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성과다. 전년도보다 성적·생활체육회 인프라 등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성취상 부문에서는 3위를 차지했으며, 우수한 퍼포먼스 정신으로 모범상을 받았다. 올해 대회에서 안산시 선수단은 홈에서 열리는 이점을 살려 우승을 노리고 있다.

안산시 역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부서를 조직하는 등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응원을 위해 안산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식당과 숙박업소 점검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6491)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이 채택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만원 이상)는 다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생활수기

주제
안산시민 생활담
(자유주제)

분량
·A4용지 2/3 이상
·관련 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24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A4용지 절반
·아기 사진 1장

내가 안산을 사랑하는 이유

주제
안산을 사랑하는 이유
또는 안산 자랑

분량
·A4용지 절반
·좋아하는 장소 사진(안산)

소식通



소비자는 혜택받고, 사장님은 매출 쑥쑥

안산사랑상품권 **다운**

다운: 많을수록, 막을수록

구입방법(일반발행)

현장구입(지류식, 카드식)

온라인구입(카드식)

NH농협은행

지류식 - NH농협은행 관내농협 31개 지점

카드식 - NH농협은행 중앙회 10개 지점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 → 안산시 선택 및 카드 신청 → 카드 등록 → 계좌연결 → 금액 충전 → 소독결제 신청 → 매장에서 결제 및 이용내역 확인

이용안내

카드식

1. 사용처: 관내 소상공인매장 (유형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외)
2. 고객센터: 1899-7997
3. 홈페이지: 검색창에 '경기지역화폐' 입력!

지류식

1. 사용처: 가맹점스티커 부착매장
2. 민원콜센터: 1666-1234
3. 홈페이지: 안산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다운' 클릭!(가맹점 검색 가능)

7월1일부터 **6%혜택**

안산사랑상품권 다운 사용처 확대

안산시는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다운 상품권 100억을 추가발행하며 가맹점 제한업종을 일부 완화하여 상품권 사용처 범위를 확대하였다.

관련된 완화 업종은 슈퍼마켓(한샘마트, 진로마트, 하모니마트), 병원(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예식장, 숙박업(호텔, 여관, 모텔), 부동산중개업, 금은방으로 다운 가맹점이라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안산이 본점이 아닌 곳의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대리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7월 1일부터 6%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 문의: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2843)

매월 마지막 주는 '문화가 있는 날'

안산시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무료공연, 입장료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단원미술관, 박물관(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 여촌민속박물관, 안산향토사박물관)을 포함하여 관내 시립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2019 마켓 포레스트'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10월까지 개최된다.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들의 예술·음악 공연과 함께 플라멩코, 푸트트릭 등 즐길거리가 많아 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8월 28일 수요일에는 고잔역 역사공간에서 '예술열차 안산선'이라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나는 거리공연과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다채로운 아트마켓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7)
안산문화재단(031-481-4000)

제24회 안산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안산시여성상 및 양성평등진흥 유공자 10명에게 수상

제24회 안산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7월3일 안산문화예술회관에서 달맞이 극장에서 열렸다. 행사는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 웃는 함께 성장하는 함께 행복한 안산'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진찬 안산시부시장은 기념사에서 "우리사회가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많아지고 있지만,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49개 국가 중 115위에 불과하고, 여성경제 활동지수가 남녀임금 격차 및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평균이하라고 보고되고 있다"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더욱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질 좋은 일자리와 지위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바람이며 운동이다"고 말했다.

김동규 시의회의장은 축사에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됐고, 2015년 양성평등법으로 바뀌었다. 이는 양성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안산시에는 국장급 여성고위직이 없으며, 이처럼 편향된 인사에서 여성의 지위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발전에 힘쓴 시민 10명에게 수여한 안산시민 여성상을 비롯해 양성평등진흥 유공자상, 경기여성 기여경진대회 입상자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 이옥희(누리마루여성쉼터장) 씨는 직원들과 시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수상을 기뻐했다. 또한 최연소로 경기여성 기여경진대회 꽃꽂이 부문에서 우수상을 입상한 김지혜(23세) 씨를 비롯해 모든 수상자들의 가족이나 회원, 이웃 등의 영상편지는 그들의 수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채로움이 돋보였다.

국악인 오정혜 씨와 가페라가수 이한, 극단 이유의 '다시 한 번 그 춤' 공연은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했다. 부대행사로 성폭력예방과 양성평등 의식 확산 캠페인, 건강가정·여성권익증진 홍보 부스, 디딤돌마켓 등도 마련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 문의: 여성가족과(031-481-2306)
노론산 명예기자_nrrsun@hanmail.net

“당신의 수다가 안산을 바꾸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누구나대화모임@안산' 진행

친구를 만나든 가족이 모이든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모든 것이 '수다'가 된다. 일상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들, 수다가 어찌면 우리가 사는 지역, 더 나아가 이 사회를 바꾸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는 역발상에서 시작했다는 '누구나대화모임@안산' 프로그램이 안산에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대화모임@안산'을 주관한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 곳곳에서 시간과 장소, 형식의 제한 없이 대화주간 동안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대화모임이다"며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모아내는 것으로 안산 시민이면 누구든지 참여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누구나대화모임@안산'은 지난 2018년 안산 지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32개의 대화주제에 257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누구나대화모임@안산'의 주제등록 기간이 7월 5일까지였는데 '환경', '이주민', '청소년', '문화', '애완동물', '교육' 등 다양한 대화주제들이 모집됐다.

대화주제를 등록하고 대화의 장을 이끌어 가는 담당자를 '대장'이라고 부른다. 모집된 '대장'들이 본격적인 대화주간이 열리기 전 12일 사전 모임을 가져 그 현장을 찾았다. 각 주제를 가진 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떤 주제로 시민들과 대화모임을 진행할 것인지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다.

상록구 이동에 사는 한 대장은 "이동에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공간이 부족해 2018년부터 마을의 다른 엄마들과 함께



누구나대화모임@안산 대장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놀이기획자 과정을 통해 팝업 놀이터를 만들어 왔다"며 "올해는 대화모임을 통해 엄마들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생태 놀이터를 마을에 조성하려고 한다"고 참가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른 한 대장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주제로 정하고 "대화모임의 이유는 길고양이와의 공존이다"며 "모임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계자는 "대화모임은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지원센터에서 다과비, 장소대관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며 "대화주간 동안 다양한 수다들이 모여 마을을, 지역을 바꾸는 건강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문의: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031-409-7960)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²⁹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몸도 마음도 아픈 아이들을 웃게 해주는 '맘스메디'



안산시 청년큐브 한양캠프에 입주해있는 맘스메디(대표 유혜선)는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설립됐다. '맘스메디'는 '엄마(Mom)'와 '의학(Medical)'의 합성어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꼼꼼하게 병원을 위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기업의 목표가 담겨있다.

유 대표는 10년의 병원 업무 경력과 제조회사에서의 3년의 업무 경력이 있다. 병원에서 일하던 유 대표는 입원한 아동들이 병원의 분위기와 주삿바늘 등으로 공포를 느끼며 부모와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로 이어지던 점을 기억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미폴대'를 출시했다.

고미폴대는 곰 캐릭터로 제작된 승용 링거대다. 아이들이 병원에서 링거대를 놀이기구처럼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회성과 위험성을 개선하는 제품을 제작했다. 제품은 2~5세 아동들이 쉽게 탑승할 수 있고, 최대 하중은 50kg이다.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곰 캐릭터로 제작했고,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노란색 계열이 사용됐다. '2018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론즈를 수상했으며, KC인증(어린이제품 안전 확인)도 받았다. 병원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링거폴대와 결합이 가능하고, 저소음, 넘어짐 방지 등 어머니처럼 꼼꼼하게 제작된 제품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유 대표가 고미폴대를 꼭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있다. 사무실도 없이 집에

서 제품을 만들며 고군분투하던 중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을 준 한 어머니 때문이다. 이 어머니에게는 주기적으로 심장투석을 하는 자녀가 있었고, 아이의 링거에 대한 공포와 불편함 때문에 치료의 어려움이 있어 개인 구매를 요청했다. 유대표는 제품을 기증해 아이가 웃는 모습을 확인했고 필요성에 대한 확신도 얻었다.

맘스메디가 여기까지 사업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안산시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안산시 중소기업 홍보 마케팅 교육, 경기테크노파크 혁신성장 전략교육, 안산시 여성기업 온라인 마케팅 전략교육, 마케팅 실무교육, 홈페이지 제작 교육 등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청년큐브 사무실, 마케팅, 해외 진출, 인증획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맘스메디는 두 번째 아이템으로 병원에서 식사 배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8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 문의 : ㈜맘스메디 유혜선 대표 (010-4909-0433, <https://momsmedi.modoo.at/>)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인구 늘어나려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

저출생 · 고령화 사회 대응 위한 ‘안산시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안산시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세계 인구의 날인 7월11일을 맞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안산시 인구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기념행사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출산·육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인구정책 관련 유관기관, 출산·육아에 관한 여성모임,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활동협의체, 관심있는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린 청년문화공연은 청년 창업을 위해 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큐브 입주 기업인 ‘그루브어스’, ‘디스이즈잇’이 멋진 공연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신항식 안산시 정책기획관은 “안산시 인구정책이 나아갈 길”에 대해 발제했다.

신 정책기획관은 “현재 안산시 인구 변화 양상의 특징은 14세 이하 유년인구가 44.1%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8%나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가

고 있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산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조(粗)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이 2008년 10.5명에서 2017년 6.5명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최근 재개발, 재건축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전출이 심화된 것, 반월시화공단의 영세화로 인한 고용수 감소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인구는 2013년 76만2천915명에서 2019년 현재 71만4천344명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신 정책기획관은 “안산 시민들이 인구 증가에 관련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본 결과, 안정적인 일자리(고용)를 만들고, 특히 청년들의 가장 큰 고충인 주거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며 “시민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송창식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박사는 ‘안산시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제안했다. 송 박사는 “안산시민·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회복, 산업도시로서 활력을 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방적인 도시재생의 공급보다 수요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강소기업으로 오랫동안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을 안산형 향토기업으로 육성하고 사회공헌을 겸비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장 곳곳에는 ‘인구 인식 개선사업’을 주제로 한 인구정책 관련 사진전시회, 3D프린팅 체험, 심리상담, 사주카페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됐고, 안산시 청년뮤지컬단 ‘A1’의 인구정책 뮤지컬 쇼케이스 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 문의 : 안산시 정책기획관(031-481-3909)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동네 유희공간, ‘방과후 마을돌봄’ 교실이 되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동 ‘방과후 마을돌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과후 마을돌봄 교실이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석호경로당 2층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오랫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지속한 사동에 처음 개소한 방과후 마을돌봄은 ‘온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을 꿈꾸던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만들어진 의미 있는 성과다. 마을교사가 된 엄마들이 아이들과 체험교육을 하는 토요동아리 수업이 정착되고, 마을교사 양성과정으로 돌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마을돌봄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모아갈 수 있었다.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직능단체, 주민모임, 권역별대표, 관내 학부모회로 이뤄진 사동주민협의회가 주체가 돼 지역조직과 유관조직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공모사업에서 예산도 지원받으면서 마을돌봄으로 첫발을 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유순·추영희 사동주민협의회 공동대표는 “동장님과 노인회장님의 협조로 동네에 좋은 유희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들을 마을에서 함께 키워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동네 주민들이 큰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동 방과후 마을돌봄은 놀이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관계를 배우게 된다는 철학으로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고 기획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보드게임과 바깥놀이 활동, 책읽기 및 미술 동아리 활동이 이뤄지며, 기본적으로 건강한 간식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하도록 돕는다.

마을돌봄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우주영씨는 “마을돌봄은 아이들이 공부에서 벗어나 집에 있는 것처럼 맘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며, “프로그램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 다양한 것들을 직



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대상을 초등 1학년에서 3학년 까지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주셔서 마을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커나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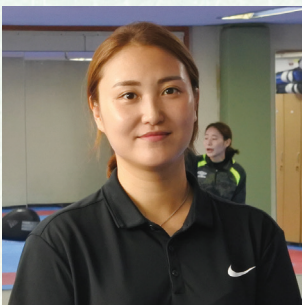
한편, 방과후 마을돌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간식비와 재료비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는 각자 부담한다.

◇ 문의 : 사동주민협의회 마을돌봄분과(010-4741-6331)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hanmail.net

INTERVIEW

“매일 땀 흘리고 있는 안산시 태권도 팀, 좋은 성적으로 시민들에 보답하겠다!”

김보혜 코치 (안산시 태권도 팀)



올해 5월 안산시에서 열린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안산시는 종합 준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총 7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중 하나가 ‘태권도’다. 7월 11일, ‘제18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5인조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기도 해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안산시 태권도 팀’을 이끌고 있는 김보혜 코치를 만났다.

Q. 안산시 태권도 팀과 종목에 대한 소개

안산시 태권도 팀은 2008년에 창단했고, 여자선수 7명이 소속된 여자부 팀이다. 안산시 태권도 팀 창단부터 함께 해 온 김찬구 감독 그리고 코치 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올 초 실업연맹대회에서도 우승했고 며칠 전 여성가족부장관기 대회에서도 우승하며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태권도 종목은 총 8개 체급으로 이뤄졌다. 우리 팀은 한 체급을 제외하고 경량급부터 중량급까지 7명의 선수가 훈련 중이다. 다른 시 태권도 팀에 비해 숫자가 적은 편은 아니다. 태권도 팀은 보통 5명 이상으로 이뤄져 있다. 최소 4명 이상은 되어야 단체전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3인조, 5인조 단체전, 개인전으로 주로 구성된다.

Q. 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태권도는 기록만으로 선수들의 차이가 눈에 보이는 종목이 아니다. 선수들의 레벨 예상이 잘 안되고, 비슷한 수준의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대한민국은 태권도 중 주국인 만큼 선수와 팀이 굉장히 많고 수준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Q. 태권도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하며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태권도는 체급경기다 보니 일상적으로 체중관리를 가장 민감해하고 어렵다. 사소한 오차도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심할 때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관리한다. 경기 하루 전에는 계체량에 통과해야 하는데 매우 힘들다. 그러면서도 사람 대 사람으로 부딪히는 격투기 종목이기 때문에 심리전도 매우 중요하다.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장기적인 계획

앞으로 대회가 많은데 그 중 현재 가장 중요하게 준비 중인 대회는 전국체전이다. 오늘 10월 제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리는데, 그 큰 무대에서 꼭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고 싶다.

Q. 안산특색을 읽을 안산시민 여러분께 한마디!

태권도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재밌게 할 수 있고 건강에 도움도 되는 종목이기에 더 많은 시민들이 태권도를 즐기고 알아 갈 수 있도록 우리 팀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태권도가 겨루기 시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격파, 태권체조, 품새 등 여러 가지 함께 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종목이다. 안산시청 태권도 팀은 매일 많은 땀을 흘리고 있다. 더 좋은 성적으로 안산시민에게 보답하고 싶다.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한빛방송 (7월 5일~19일)
감성여행 대부해솔길 188리

TV 조선 (7월 6일)
특집다큐 '안산시 스마트산업단지 미래를 열다'

연합뉴스 TV (7월 20일)
111개국 사람사는 미니 지구촌 안산원곡동

KBS (7월 26일)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안산시 촬영 화제

시 주요 관광지서 에피소드 촬영예정,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큰 기대



안산시는 시내 주요 관광명소에서 최근 인기몰이중인 tvN 월화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가 촬영되면서 큰 관심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인기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리메이크한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한국적 정서가 반영돼 재구성되면서 회차를 거듭할수록 몰입감을 더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7월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1·2회차 시청률이 4%대를 유지하고 있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안산시는 드라마 주요 장면이 안산시 내에서 촬영되고 있어 도시 이미지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좋은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드라마 후반에는 대부도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안산시의 관광명소가 드라마의 중요한 에피소드로 방송될 예정이라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전 세계 190개국에 유료시청자 1억3천만여 명을 보유

한 '넷플릭스', 'tvN ASIA(tvN 동남아시아 채널)' 등 해외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방송될 예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최근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가 인기 여행지로 이어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며 "이번 드라마를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이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져, 안산시의 긍정적인 모습이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vN 월화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는 배우 지진희와 배종옥, 김규리, 강한나 등이 출연하며 총16부작으로 매주 월·화요일 오후 9시30분에 방송된다.

◇ 문의 : 안산시청 공보관(031-481-3126)

안산시 다문화 음식거리 돌며 '세계 한 바퀴'

KBS1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안산시편 방송



배우 김영철이 동네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도시의 숨은 매력을 재발견하는 KBS1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를 통해 안산시가 전국에 소개됐다.

7월27일 본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는 안산시의 주요 관광지를 차례대로 알렸다.

푸근한 이미지의 국민배우 김영철은 안산 시화조력발전소 달 전망대에서 해양·생태·관광도시 안산의 비전 소개를 시작으로, 단원 김홍도의 얼이 서린 청문당을 둘러보며 천년역사의 숨이 살아 있는 고장임을 확인했다.

이어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특구 곳곳을 걸으며 전 세계 다양한 민족의 이색문화와 음식을 직접 경험하며 대한민국 다문화 중심도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전국 곳곳을 소개하는 아날로그 감성 도시기행 다큐멘터



리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는 전국 평균 8%대 시청률을 유지하며 주말 저녁 프라임시간대 시청자들의 잔잔한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안산시편 촬영을 위해 제작진은 6월부터 자료조사와 현지답사 등 사전제작을 통해 준비를 마쳤으며, 7월 초 배우 김영철이 현장 촬영을 하며 안산의 숨은 매력을 따라가며 따뜻한 이야기를 방송에 담아냈다.

김영철씨는 다문화특구 촬영 현장을 방문한 안산시 관계자로부터 "안산시는 세계 102개국의 8만6천여 명이 모인 전국 최대 다문화 도시"라는 말을 듣고 놀라며, "우리 프로그램 이름답게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세계를 한 바퀴 돌아본 것과 같은 느낌이라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안산시 소셜방송 안산드림TV 명예기자 모집

8월 14일까지 안산시민 누구나 응모 가능

안산시는 소셜방송 '안산드림TV'와 함께할 시민 명예기자 5명을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상제작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시는 영상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명예기자 선발 후 소정의 스마트폰 영상 촬영 및 제작 과정을 교육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명예기자는 안산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문화행사, 공동체 소식 등 안산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안산드림TV 매체인 유튜브, 네이버TV, 네이버블로그, 카카오TV를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접수는 이메일(ansandreamtv@gmail.com) 또는 공보관실로 방문접수(031-481-3152)하면 된다. 방송은 유튜브에서 '안산시유튜브'를 검색해 최근 방송콘텐츠로 볼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청 공보관(031-481-2045)

(주)청우씨엔티 오재순 대표

“고객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맑은 공기를 선물한다!”



(주)청우씨엔티 오재순 대표

안산시 역사와 한 길을 걷고 있는 안산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는 안산시민들의 일터이자 안산시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둔화와 경쟁력 약화, 기반시설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저하, 입주기업의 영세화·소기업화 등 어려움 속에서 혁신과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깨끗한 환경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 하는 기업이 있다. ‘고객들에게 맑은 공기를 선물하자’는 의미를 담은 ‘CAFU’(Clean Air For You)라는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유해가스 정화기 분야에서 5개의 특허를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생산하는 오재순 (주)청우씨엔티 대표를 만났다.

Q 유해가스 정화기 전문기업, (주)청우씨엔티 설립 배경

12년 정도 클린룸 설비업체에서 일하다가 회사를 나왔다. 뭘 할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네일숍에 갔다가 흡진기를 발견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기계를 하나 구입해 분해하고 테스트해 봤다. 이 기계를 내가 만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기에코노파크를 통해 소개를 받아 장비를 하나 개발했다.

그런데 네일숍에서 사용하기엔 너무 크고 용도가 맞지 않아 안산 고대병원에 샘플로 줬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 병원에서 약품들을 다룰 때 발생하는 오염물을 처리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입소문이 나게 되고 계속해서 기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2014년 (주)청우씨엔티를 설립했다.

Q 주요 생산 제품 소개

탈취 시스템, 필터로 오염물질을 거르는 것을 기본으로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을 만

들어 왔다. 처음 만든 것은 탁상형 유해가스 정화기로 실험실, 연구실, 납땜 작업장 등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오염원을 정화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정화기다. 이어서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정화기를 개발했다.

정화기들은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필터 교체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필터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알람도 내장됐다. 그리고 오염물을 빨아들이는 부분의 호스가 유연한 재질로 제작돼 소비자가 조작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점이 특징이다.

장비에 따라 필터가 조금씩 다른데 약취, 유해가스뿐 아니라 미세먼지도 잡아준다. 용도뿐 아니라 산업체나 사용하는 장소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주문 제작하다 보니 그것이 곧 신제품 개발이 되고 아이টে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력한 바람으로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배출시키는 다풍량 정화기는 연구실이나 산업체가 아닌 미용실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Q (주)청우씨엔티만이 가진 경쟁력은 무엇인가?

산업체, 학교, 병원 등에서 오염물질, 산업재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공단에서 관리도 하고 있다. 이 분야는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이라 본다. 한 쪽 산업군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제품을 활용 할 수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습할 때 놓고 쓸 수 있는 작은 납땜용부터 각종 약물을 다루는 병원, 레이저 시술용 유해가스가 생기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미용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작업 현장에서 고객들의 요구를 통해 연구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자는 방향에서 차량용을 개발하고 있다. 시중에 차량 공기청정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본다. (주)청우씨엔티가 필터 전문 업체인 만큼 필터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10월쯤 제품이 나올 예정인데 이것이 시중에 잘 보급되면 회사가 한 번 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2017년 정도부터 수출 쪽에도 눈을 돌렸다. 국내시장은 한계가 있다 보니 수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업무상 거의 한 달에 한번은 해외로 나갔다.

산업용 기계의 특성 상 정기적으로 제품 확인, 인증 등 절차가 쉽지 않지만 올해에도 계속해서 수출을 시도하고



진열되어 있는 (주)청우씨엔티 생산품

있다.

Q 경영철학은 무엇인가?

처음 이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돈만 많이 벌어야지라는 마인드가 아니었다. 우연히 네일숍에 갔다가 하루 종일 젤손톱을 제거하며 나오는 먼지와 고균분투하는 직원들을 보며 ‘아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소비자들에게서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느끼고 소비자들의 입장을 항상 중심에 두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물론 각종 특허증, 인증, 디자인 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 인증의 경우 안전 인증을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안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 인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생각해 디자인도 신경 쓰고 있다. 직원들에게도 항상 본인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주)청우씨엔티만의 브랜드도 만들고 마케팅을 중시하고 있다.

또 회사 경영에 있어 직원들의 복지를 중시한다. 직원들이 하루 중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당연히 많은데, 있는 동안만큼 가장 편하게 있고 편한 맘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회사 내부 리모델링도 크게 투자해서 휴게 공간, 넓은 사무실, 샤워장, 전시 공간 등을 새로 꾸몄다.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편해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Q 안산특구를 통해 (주)청우씨엔티를 접하게 될 안산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람들이 보통 소비를 할 때 대기업 제품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할 때에도 대기업을 선호하고, 제품도 대기업 것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은 아무래도 광고에 더 많이 투자할 수도 있고,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기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제품들의 질도 뛰어난 것들이 충분히 많다. 중소기업들이 더 노력할 것이니 소비자들이 편견 없이 더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문의 : (주)청우씨엔티(031-365-3630)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한 눈에 보는 안산시 도서관

우리 집이랑 가~장 가까운 도서관은 어디일까? 상록구와 단원구의 시립 도서관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지도로 정리해봤다. 다음 학기가 오기 전에 우리 아이가 방학 때 무엇을 해야 도움이 될까 걱정인 엄마들, 밀린 방학숙제와 학원공부에 지친 아이들. 도서관에서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과 함께라면 걱정이 사라진다. 더위를 피해 마실 나온 가족들을 위한 영화 상영까지(3면 참조),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무더워져만 가는 여름, 여름방학의 계절 8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도서관에서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내보면 어떨까? 운영시간은 평일/주말/하절기/동절기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시간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https://lib.ansan.go.kr>).

선부 도서관



30,380권 보유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국경일(법정공휴일)
열람실: 오전 7시~오후 11시(일반 124석)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00(선부동)
문의: 031-481-3888

관산 도서관



203,585권 보유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금요일, 국경일(법정공휴일)
열람실: 오전 7시~오후 11시
 (일반 230석/학생 262석)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관산길 29(원곡동)
문의: 031-481-2651

대부 도서관



35,898권 보유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국경일(법정공휴일)
열람실: 오전 7시~오후 11시(일반 84석)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남로30(대부북동)
문의: 031-481-3955

중앙 도서관



314,015권 보유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국경일(법정공휴일)
열람실: 오전 7시~오후 11시
 (일반 362석/학생 88석)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고잔동)
문의: 031-481-2702

안산시도서관 이용안내

안산시도서관 (<http://lib.ansan.go.kr>)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 대 상** • 경기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도 관내 직장인 및 재학생
 • 도 관내 거주 재외동포 거소신고자 또는 등록외국인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필요시)
- 가 입 처** • 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후 자료실에서 회원증 발급

도서대출 및 반납

- 1인 1회 10권(관내통합 20권)까지 대출가능하며 대출기한은 14일 이내,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가능 (단 예약자료는 불가)
- ※ DVD자료 : 도서관 당 2개, 도서대출권수에 포함
- 반납 연체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 열람실 및 각종 도서관서비스 이용 제한
- 도서 분실시 같은 도서로 변상(절판된 경우 도서금액으로 변상)

도서예약서비스 이용

- 도서관회원증이 있어야 이용가능
- 예약도서가 반납되면 문자(SMS)발송
- 3일 동안 우선대출 기간 제공
- 1인 2책 / 1책 2인까지 예약가능
- 예약방법

홈페이지(lib.ansan.go.kr)	컴퓨터(자료실 도서검색)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도서검색 → 예약버튼 클릭	도서검색 → 회원증(회원번호)으로 로그인 → 예약버튼 클릭 → 예약완료후 반드시 로그아웃

희망도서 신청

-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월 2회 도서구입 및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해 월1회 5권 신청가능
- 3일동안 우선대출 기간 제공





단원어린이 도서관



126,631권 보유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국경일(법정공휴일)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30(초지동)
문의: 031-481-2678

부곡 도서관



24,740권 보유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금요일, 국경일(법정공휴일)
열람실: 오전 7시~오후 11시(일반 56석)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33(부곡동)
문의: 031-481-3602

성포 도서관



157,589권 보유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국경일(법정공휴일)
열람실: 오전 7시~오후 11시 (일반 114석/학생 176석)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528(성포동)
문의: 031-481-2755

상록어린이 도서관



126,539권 보유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금요일, 국경일 (법정공휴일)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체육관로 45(일동)
문의: 031-481-2671

원고잔 도서관



20,031권 보유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금요일, 국경일 (법정공휴일)
열람실: 오전 7시~오후 11시 (일반 48석)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33(고잔동)
문의: 031-481-3876

감골 도서관



185,506권의 책 보유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금요일, 국경일 (법정공휴일)
열람실: 오전 7시~오후 11시 (일반 200석/학생 204석)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공원안길 16-1(사동)
문의: 031-481-3708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영어 및 미디어 특화도서관)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금요일, 국경일(법정공휴일)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98(고잔동)
문의: 031-481-3963

자료실명	자료실 이용안내
제1영어자료실	취학 전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전용공간과 초급수준의 영어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공간
제2영어자료실	자신의 영어수준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공간과 중·고급수준의 영어도서 및 신문, 간행물을 소장하고 있는 공간
미디어자료실	미디어자료의 감상 및 PC, 노트북을 이용한 디지털 자료 열람 및 검색, 인쇄를 할 수 있는 공간
영상스튜디오	전문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영상콘텐츠를 촬영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공간
음향스튜디오	전문 음향·녹음장비를 이용하여 음향콘텐츠 제작할 수 있는 공간
미디어편집실	편집 프로그램 및 장비를 이용하여 영상·음향·이미지·콘텐츠 등을 편집할 수 있는 공간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다

단원미술관 기획전시, '이미지: 매혹의 연금술' 展 개최



단원미술관은 8월 31일까지 한국 현대미술 작품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이미지: 매혹의 연금술'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현재 한국미술에서 괄목할 만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로 관객이 현대미술 작품을 만날 때 일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도록 구성했다.

전시는 '이미지, 상상된 것과 은유된 것'과 '이미지,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두 개의 섹션으로 진행된다. 섹션1은 풍경을 재구성하거나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와 사회적 현상들을 재해석해 회화, 설치, 사진, 조각 등으로 이미지를 증폭하는 이경미, 김보민, 임택, 김규식, 노기훈, 윤기원, 아트눔, 돈선필, 이부록 작가의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고 있다.

섹션2에서는 재료적 경계가 없어진 현대 조각의 확장성과 디지털화 된 이미지가 어떻게 관람객들을 매료하는지 보여주는 권오상, 진기중, 이미남 작가의 작품이 더해져 '이미지의 매혹'

이라는 본 전시의 주제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특히, 가벼운 '사진 조각'으로 미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권오상 작가가 자신의 흥상 사진 조각의 대부분을 본 전시에 처음으로 대거 선보이고, 고양이 작가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경미 작가와 젊은 작가군에서 뜨거운 조명을 받고 있는 돈선필 작가, 한국 팝아트 부분에서 오랫동안 두각을 나타내 온 윤기원 작가, 제12회 KT&G SKOPF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김규식 작가 등이 이번 전시에 신작들을 선보여 전시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전문 도슨트의 전시투어를 신청해 들으면 작품 이미지 읽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슨트 설명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등 3번 진행되며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직장인이나 근로자들의 관람 편의를 돕기 위해 오후 9시까지 연장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유료 관람으로 안산시민은 입장료가 50% 할인된다.

전시 관계자는 "더운 여름 미술관에서 편안하게 작품 이미지를 읽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며 "현대미술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수요일: 21시까지)

관람료: 일반/대학생: 4천원, 초·중·고등학생/군경: 1천원
(10인 이상 단체는 500원)

미취학아동 / 65세이상 어르신 / 장애인: 무료

◇ 문의: 단원미술관(031-481-0504) /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2019 여름미모페스티벌

뜨거운 공연과 시원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도심 속 문화바캉스



안산문화재단은 오는 8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 광장 일대에서 '2019여름미모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여름미모페스티벌은 2004년 시작하여 매년 8월 여름의 무더위를 날려준 안산의 대표적인 여름 문화 프로그램이자 도심형 축제이다. 올해는 축제가 시작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으로 돌아와 푸른 숲의 무대에서 시원한 정취를 즐길 수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SBS 대표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의 '내시경 밴드'가 여름미모 페스티벌을 찾는다. '록의 살아있는 전설' 김도균, '한국 음악의 뉴웨이브' 장호일, '비의 랩소디' 최재훈과 '프레디 광큐리' 김광규, 그리고 '대체불가한 한국의 디바' 김완선 까지 출연하여 불타는 낭만의 밤을 예고한다.

세계를 여행하며 감동을 주는 버스커 안코드, 얼터네이티브 힙합과 R&B를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임다이, MBC대학가요제 대상 출신의 이인세가 주축으로 결성한 모던 록 밴드 '코로나', 낭만적인 밤을 뜨겁게 달굴 DJ파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여름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시민들에게 물놀이,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여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오전 11시부터는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하여 목표 지점까지 완주하는 경기인 오리엔티어링(orienteeing) 용감무쌍 탐험대가 시작된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참

여형 이벤트이자 친환경 스포츠로, 무대가 되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푸른 녹지들과 어우러져 신나는 모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매해 많은 관심을 받은 여름미모만의 특별한 빙수 만들기 달콤살벌 팔빙수는 가위 바위보로 자신의 팔빙수를 채워갈 수 있다. 어린이들의 여름 놀이터가 될 풍당풍당 수영장은 페스티벌에 맞춰 완공될 전당의 음악분수와 함께 도심 속 물놀이 공간이 될 것이다. '여름미모페스티벌'은 휴가를 떠나지 못한 도시민들에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문화 피서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특히 대중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방송 프로그램 연계되어 더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문의: 안산문화재단(031-481-4000)



8월에 가기 좋은 안산시 3선

시화호 달전망대 · 안산어촌민속박물관 · 풍도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달전망대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달전망대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에 속한다. 대부도를 향해 달리다 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바다 위로 길이 12km를 자랑하는 쪽 뺨은 시화방조제를 달리면 런던의 타워 브릿지도 부럽지 않은 여행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시화방조제를 진입하면 방조제 우측으로는 인천 송도가 보이고, 좌측으로는 바다 한가운데 줄지어 선 전선이 차와 함께 달리기를 시작한다. 바다 위에 떠오른 태양과 파도는 갈매기들과 넘실거리며 시화호 풍광을 한층 더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을 유혹한다.

시화방조제 중간쯤엔 인구 50만 규모 도시에 1년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에너지로 연간 생산하고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 설치된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달전망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시화나래 조력문화관과 달전망대, 스카이워크, 전망대카페 등을 둘러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더위도 잊고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관광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높이 75m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노트모양의 달전망대다. 달전망대는 1층과 2층으로 구분됐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오르면 투명유리창을 통해 시화호 전체를 감상하고, 유리바닥을 통해 심장이 뛰는 아찔한 경험도 할 수 있다.

커피숍에서 시원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시화호 풍경을 감상하면서 시간을 즐길 수 있어 연인과 가족들의 주말나들이 코스가 되고 있다. 시화나래휴게소는 비가 내리면 내린 대로 해무가 끼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날씨가 맑으면 맑은 대로 멀리 인천 앞바다 송도까지 볼 수 있어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부천에서 가족과 바람을 쐬러 나왔다는 관광객은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주말에 갈 곳이 없어 나왔는데 뜻밖에 이런 멋진 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며 “안내도를 보니 갈 곳이 많아 다음 주에는 어촌마을에 가서 바지락 잡는 체험을 할 것이다”고 즐거워했다.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자리한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은 대부도 탄도항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간척사업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경기만 갯벌의 문화와 생활상을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해 세워졌다. 박물관 상설전시실은 총 3개관으로, 경기만 갯벌의 생태, 민속,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전시가 준비돼 있다.

1전시실에는 ‘살아 숨 쉬는 섬’ 대부도를 소개하고 있고 2전시실에는 ‘바다 밭 일구기’라는 테마로 다양한 갯벌 채집 도구들과 운반도구들을 전시하고 있다. 3전시실에서는 대부도 ‘옛사람들의 기록과 섬마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역사적 흐름에 따라 발굴유적과 주민들의 반농반어 생활상, 포도농사와 염전으로 대표되는 대부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층 3전시실에서는 청일전쟁의 시발점 ‘풍도해전, 그날!’을 기획전시하고 있어 풍도의 역사적인 배경과 생활 상 등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보는 현장학습위주의 역사탐방을 체험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평택에서 온 한 관광객은 “더위도 피하고 아이들에게 생생한 어촌의 모습들을 보여 줄 수 있어서 학습적인 차원에서 유익한 체험을 해서 즐거웠다”며 “안산은 구경할 수 있는 명소가 많아 좋겠다”고 말했다.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주말 생태체험프로그램이 연간 운영되고 있어 더위를 피해 여름휴가를 안산에서 즐겨보는 것도 피서의 한 방법이 될 듯하다.

야생화의 천국 풍도

대부도에서 남서쪽으로 17km, 안산시에서는 44.5km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풍도는 면적 1.84km²이고 해안선길이는

5.5km이다. 풍도행 정기 여객선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하루에 한 번 운항한다.

오전 9시30분에 출발해서 오전 10시30분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항 여객선터미널을 거쳐 풍도에 도착한다. 하루 한번 출발하고 1박을 해야 하는 코스다. 차량은 5대 승선할 수 있고 자가를 이용해 풍도를 들어가려면 인터넷(가보고 싶은 섬)에서 선 예매를 하는 것이 좋다. 계절, 홀, 짝수일, 바다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미리 선사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에서 2시간 낚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빨간 등대와 흰 등대 사이로 갈매기들이 날갯짓을 하며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한다. 병풍처럼 후방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 약 120여명의 주민이 사는 아주 작은 섬으로 아기자기한 집을 지나 오솔길로 걸어 올라가면 500년이 넘도록 풍파를 견뎌온 은행나무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을 지나면 저마다의 빛깔로 꽃망울을 터뜨리던 노란 복수초, 분홍의 노루귀, 하얀 풍도바람꽃, 핑의바람꽃, 붉은 풍도대극 등이 피어 있는 야생화 천국이 펼쳐진다. 봄에 피었던 꽃들은 다 지고 그 주위를 에워싼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어 여름에도 산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주말에는 하루 평균 500여 명의 관광객이 섬을 찾고 산악회에서도 자주 찾는 코스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파아란 하늘을 배경으로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도는 해안선을 따라 30여분 걸어가면 채석장이 나오고, 그 길을 지나가면 옥취빛 바다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북배(붉은 바위를 뜻하는 붉바위에서 유래)가 나온다. 북배에서 바라보면 등대가 있는 조그만 바위섬도 보인다. 밀물 때는 섬이 되고 썰물 때는 풍도와 연결돼서 등대까지 갔다 올 수 있다. 해안 산책로에는 풍도 주민 60세대의 생활 이야기가 글과 그림으로 시각화 돼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섬 전체를 다 돌아도 3시간이면 충분하다.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로망으로 불리는 북배는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갈매기들의 서식처로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이곳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 환상의 나라를 떠는 일몰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피서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풍도에서 즐거운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이런 놀이 해봤니?... 비석치기 · 죽방울놀이 · 죽마놀이 전래놀이지도자... 놀이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단원구 와동 '기왓골 마을학교'는 전래놀이지도자 양성과정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어릴 적 즐기고 놀았던 비석치기, 사방치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팽이치기, 죽방울놀이, 죽마놀이, 윷놀이까지 100가지가 넘는 전래놀이를 연구하고 변형해 현대에 맞는 놀이도구를 만들고, 전래놀이를 진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심종성 대표는 “전래놀이는 부모세대가 했던 놀이를 아이들이 이어받아 함으로써 문화공유와 가족 간의 소통이 가능하게 도와준다”며 “장점이 많은 전래놀이를 이끌어갈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돼서 보람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7월부터 10월

까지 4개월 동안 주 5일 하루 6시간 진행되며 시에서 참여자 임금(최저시급)과 전문지도강사료를 지급한다. 상반기에는 7명의 참여자가 과정을 마치고 전래놀이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중 3명은 하반기 과정의 반장으로, 보조강사로 방과 후 교실,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행사 부스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과정 참여자 한금여(43)씨는 “와동 덕인초등학교에서 보자기를 이용한 제기차기 놀이수업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고 놀이수업이 끝나자 또 언제 하나며 아쉬워했다”며 “몸을 움직이며 친구들과 협동해서 노는 놀이를 아이들과 더 많이 함께 할 생각”이라고 했다. 결혼 이주민 히고구보 유미(48)씨는 7세 자녀에게 한국의 전래놀이를 알려주



기 위해 이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또 일본인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전래놀이를 소개하고 전파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아이에게 한국의 놀이문화를 알려줄 수 있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과도 공유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이 소중한다”고 했다. 내년에도 전래놀이지도자 과정은 계속된다.

◇ 문의 : 안기왓골 마을학교(031-403-2273)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화랑오토캠핑장에서 한여름밤의 추억과 낭만을 즐겨요 출연진과 관객이 하나 되는 버스킹

주말이면 안산시 명소 화랑오토캠핑장에서 시민과 함께 흥겨운 버스킹이 펼쳐져 무더위에 지친 캠핑족들에게 휴식을 선사하고 있다.

안산시는 도심 속 힐링 명소인 화랑오토캠핑장에서 야영객에게 즐거운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고자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6월14일부터 시작된 공연은 10월4일까지 연휴를 제외한 매주 금·토요일 오후 7시30분에 1시간 가량 진행되고 있다. 공연 기간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야영객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버스킹 공연의 기획과 프로그램 구성, 공연자 섭외는 한국예술문화 단체총연합회 안산지부(안산예총)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도 많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매 공연마다 안산도시공사 소속 화랑오토캠핑장 근무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연팀들은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공연을 치러내고 있다.

공연 구성도 다채롭다. 재즈밴드, 발라드 가수팀, 퓨전국악, 뮤지컬 갈라 등 모두 7개 팀이 참여해 다양하고 낭만이 가득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화랑오토캠핑장 내 조롱박 터널과 친환경 수로, 향아리분수대, 어린이 물놀이 시설 설치가 모두 마무리 돼 가족단위 야영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에는 공연자와 캠핑족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고, 지칠 줄 모르는 젊은 감성을 가진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주말이었던 7월12~13일에는 퓨전국악과 댄스공연은 물



론, 혼성 4인 발라드 가수 팀이 참여해 캠핑장을 찾은 가족과 연인들에게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오토캠핑장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무더운 여름밤을 청량감 있는 밤으로 바꾸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캠핑수요에 발맞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힐링과 치유의 공간을 조성하고, 자연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도심속 최고의 캠핑장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안산에서 즐기는 세계 음식-⑦



마라상귀



한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색다른 매운맛

전국적으로 마라탕, 마라샐러드, 마라육수 등 마라를 활용한 요리가 유행이다. 마라는 매운맛을 내는 중국 사천 지방의 향신료이다.

저릴 마(麻) 자에, 매울 랄(辣) 자를 써 허가 마비될 정도로 맵고 얼얼한 맛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음식 매운맛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고추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맛이다. 이번에 소개할 음식은 각종 재료를 마라 소스에 볶아 만든 요리인 마라상귀다.

마라상귀는 충칭에서 유래된 음식이다.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음식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집에서 자주 먹던 요리이다. 평소에는 여러 가지 야채와 온갖 양념을 냄비에 넣고 볶아 먹고 손님이 오면 고기와 해물 등을 추가한다. 이렇듯 정해진 재료는 없다.

식당을 방문하면 마라상귀에 넣을 수 있는 재료인 야채, 해물, 육류 등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각자 취향에 맞게 재료를 선택해 준비된 바구니에 넣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라상귀를 맛있게 먹기 위한 필수 재료로 당면을 뽑았다. 야채는 조리 시 숨이 죽어 부피가 줄기 때문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넣는 것이 좋다. 가격은 바구니에 담은 식재료의 무게로 정해지는데 보통 100g당 2천900원~3천500원이다. 가격이 정해지면 매운맛 강도를 정해야 한다. 보통맛, 조금 매운맛, 매운맛 중에서 조금 매운 맛으로 먹어본 결과 국내의 일반적인 떡볶이의 매운 맛보다 매웠다.

안산시 내 다문화 인구 중 중국 출신이 제일 많은 만큼 안산다문화음식거리에는 중국 요리 식당이 매우 많다. 마라요리가 국내에 유행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장사를 했던 가게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동포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가게들이 있다. 안산다문화음식거리가 중국을 가지 않고도 현지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적합한 이유다.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하반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3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Before	After
•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	• 연령 제한 폐지
•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 인공수정시술 3회	• 인공수정시술 5회 확대

* 이번엔 확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

안산시시는 올해 7월부터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를 지원하고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부터는 연령제한 폐지 및 지원횟수가 확대되어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만 45세 이상자 및 만 44세 이하자 중 확대회차(신선배아 5~7회, 동결배아 4~5회, 인공수정 4~5회)에는 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로 차등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는 난임시술 전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78) 또는 단원보건소(☎031-481-6472)로 문의하면 된다.

7~8월 여름휴가철 해외감염병 조심하세요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유입 감염병을 주의하고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현재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은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모기매개 감염병과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홍역, 메르스 등 호흡기질환감염병 등으로 여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유행하고 있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부룬디 등) 방문 시 현지동물 및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슬람 성지순례(8월9일~14일) 기간에도 감염병예방 준수가 중요하다.

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의 경우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콜센터(☎1339)로 변경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과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및 예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국 2~4주 전 필요한 예방접종(예방약)을 받고, 여행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 섭취, 동물(모기, 낙타 등) 접촉 금지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검역법 제12조(검역조사), 동법 시행규칙 제6조(검역조사 등)에 따라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귀가 후 발열, 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상록수보건소(☎031-481-5999), 단원보건소(☎031-481-6363)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보건소 소식! 건강 알림 마당

한센 피부병 무료 검진 안내

◆검진과목 : 한센병, 습진, 무좀, 아토피
◆검진대상 : 안산시민 ◆검진비 : 무료
◆검진일정 : 2019년 8월 29일(목) / 11월 28일(목)
◆검진장소 : 상록수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 단원보건소 1층 보건교육실
◆검진팀 :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이동진료팀
◆문의처 : 상록수보건소(☎031-481-5941), 단원보건소(☎031-481-6364)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기간 : 연중(※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대상 : 관내 만60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검진비, 진료비 및 수술비)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지원신청서 및 해당 구비서류 제출 (※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지참)
◆문의 : 상록수보건소 방문보건팀(☎481-5952), 단원보건소 방문보건팀(☎481-6621)

모유수유 특강

◆일시 및 장소 : 8월 6일(화) 오후7시30분~9시 / 상록수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
◆대상 : 관내 출산예정 예비부모
◆교육목적 : 모유수유 장려 분위기 조성
◆교육내용 : 전문가를 초빙하여 모유수유의 중요성 홍보 및 성공적인 모유수유 비법 전수
◆문의 : 상록수보건소 모자건강팀(☎481-5975)

온열질환이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

- 주요 증상
- 고열
- 땀
- 빠른 맥박 및 호흡
- 두통
- 오심
- 피로감
- 근육경련
- 대표 질환
- 열사병 :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면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열사병'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열탈진' 어지러움과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 손, 발이나 발목이 붓는 '열부종'

○ 온열질환 발생시 응급조치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벗기고 물을 시원하게 함 → 119 구급대 도착 시 병원으로 이송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벗기고 물을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시 119 구급대 요청

◆ 온열질환은 증상이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긴급상황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 이송 전 환자를 신속히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수분보충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한 여름나기

- 물은 자주 마시고
- 햇빛을 피하고 시원하게
- 휴식은 충분히
- 매일매일 기상정보 확인

○ 무더운 날 이런 경우 더 위험합니다!

- 노약자, 고령자 및 독거노인
- 야외근로자
- 만성질환자
- 어린이
- 농/밭
- 야외작업장
- 차 안

○ 온열질환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

구분	주요 특성	응급조치 방법
열사병	· 고열 (40℃) · 중추신경 기능장애 (의식장애/혼수상태) ·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119에 즉시 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환자를 시원한 장소 로 옮깁니다. -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서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물을 식힙니다. - 얼음주머니 가 있을 시 목, 겨드랑이 밑, 사타구니 등 구멍이 많아 체온이 빠지는 곳에 놓습니다. ※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
열탈진	· 땀을 많이 흘림 (≤40℃) ·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 창백함, 근육경련	· 시원한 곳으로 옮겨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합니다. · 물을 섭취하여 수분 을 보충해줍니다.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 음료나 도음이 될 수 있으나, 과당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시원한 물 로 샤워를 합니다. ·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열경련	· 근육경련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 시원한 곳에서 휴식합니다. · 물을 섭취하여 수분 을 보충해줍니다.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 음료나 도음이 될 수 있으나, 과당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합니다. ※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말고 근육부위를 마사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바로 응급실에 방문 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 -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 평소 식이요법을 한 경우
열실신	· 어지러움 ·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음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올립니다. · 의사소통이 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열부종	· 손, 발이나 발목이 부음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사동

“각박한 세상, 공동체 그물망 만드는 역할, 축제가 할 수 있어”



사동 감골주민회 주관으로 7월 5일 사동 복합문화공간 마을숲에서 '누구나 축제 기획자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를 열렸다. 한강몽땅 여름축제와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총감독을 맡고 있는 윤성진 문화기획자를 초청한 이번 강의는 마을축제 기획에 관심을 가진 3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큰 열기 속에 진행됐다.

윤성진 총감독은 원형적 축제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 현대 축제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그는 “본래 축제는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했다”며 “결국 성공적 축제란 일상을 풍요롭게 바꾸고,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어 삶을 살아갈 만한 것으로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성을 고양해주는 대표적인 축제로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인간 탑 쌓기’를 소개했다. 100~200여 명의 주민이 힘을 합쳐 층층이 탑을 쌓아 올리는 과정은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맞대 견고한 그물망을 넓게 형성한 1층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총감독은 “마을축제도 이 1층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공동체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한국에서 공동체 그물망을 만드는 역할을 마을 축제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축제는 기획이나 프로그램 등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 관계 맺기 위한 수단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를 만드는 힘은 만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아날로그적 소통과 정직한 시간의 투자가 그물망을 만들어 낸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사동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며 주민과 함께 마을 축제를 만들어온 김용자 간사는 “대나무 뿌리이자 인간 탑 1층이 되기 위해 기꺼이 함께해주시는 모든 주민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관계 맺음과 일탈이 있는 신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살아갈 만한 동네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교육에 이어 두 번째 예정된 주민역량강화 교육은 8월23일 오전 11시 사동 복합문화공간 마을숲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련 한국외대 교육학과 교수가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 문의 : 감골주민회(031-408-7601)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hanmail.net

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불우이웃에게 에어컨 지원



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더운 여름철 냉방시설이 열악한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봉사를 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에어컨을 달아주게 된 계기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무엇을 도우면 좋을 것인지 고민하던 회원들 가운데 한 회원

이 시원한 에어컨을 달아주자고 건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지나해에 이어 올해, 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폭염 취약 대상 및 냉방시설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 노인, 은둔형 1인가구 등 5가구를 선정해 에어컨을 지원했다.

이들의 지원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된 뇌병변 장애인 최모씨는 “더우면 집안의 모든 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어도 반지하라 습하고 더운 바람이 불어 숨이 켜지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거동이 어려워 시원한 곳을 찾아 갈 수도 없었는데, 올여름은 시원하게 숨을 쉬며 지낼 수 있어 참으로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광석 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나해 여름에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며 “올여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명현 사이동장은 “폭염은 재난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선풍기만으로 폭염을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폭염 취약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체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톡톡히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일동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 함께 해결해요”



안산시 상록구 일동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주민실천단(단장 권성혜)은 5일 일동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마을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일동동네주민협의회,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일동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한 가운데 30명의 주민과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주민실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업사이클링(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교육을 시작으로 주민실천단의 역할 안내, 사업 전체 일정과 동네한바퀴 내용 자료를 공유했으며, 마을의 8개 직능단체별 단체장과의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다짐 대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지난달 안산대학교에서 열린 100인 토론회를 통해 함께 활동하게 된 모니터링단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끌어냈다.

권성혜 단장은 “주민들이 마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덕분에 자원순환마을만들기에 앞장 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 주민실천단은 지속적인 교육을 듣고, 주민의 인식개선을 이끌어 쓰레기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남 일동장은 “일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을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위해 주민이 함께 뜻을 모으고 솔선수범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자원순환마을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고잔동

고잔롯데캐슬 경로당 문열어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만균)는 고잔동 롯데캐슬골드파크 아파트 내 고잔롯데캐슬 경로당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고잔동 적금로 164에 위치한 경로당은 지난해 아파트 재건축으로 올 6월 연면적 173㎡ 규모로 방2개,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새롭게 설치되었다.

지난 11일 열린 현판식은 이만균 단원구청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지역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주민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용학 고잔롯데캐슬경로당 회장은 “어르신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노인 여가문화를 즐기는 공간”이라며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균 단원구청장은 “고잔롯데캐슬경로당이 화합과 여가를 즐기는 즐거운 쉼터가 되길 기원 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지동

아나바다 나눔장터 개최



초지동 마을계획실천단은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아나바다 나눔장터 및 체험프로그램이 개최됐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초지동 마을계획실천단은 주민들과 함께 소중한 나눔과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나눔장터 및 체험프로그램을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한다. 특히, 무료체험 활동인 뽀빠 공예를 통해 세대 간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눔장터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통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나누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역배 초지동장은 “우리 초지동 마을계획실천단에서 준비한 아나바다 장터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초지동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백운동

휘날리는 태극기 특화거리 조성



국기 특화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더불어 시민들의 태극기 특화거리를 통해 애국심 및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설치되었다. 이경숙 백운동장은 “앞으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태극기 사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애국심 고취와 마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높일 계획이며, 더불어 향후 태극기 거리를 백운동 전역으로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운동 행정복지센터는 라성로 일원에 태극기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안내판을 설치했다.

백운동 태극기 특화 거리는 2012년 당시 원곡2동 관내 다중밀집지역에 아름다운 태극기 상시거리를 조성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최초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라성로(백산상가-보성프라자)약 225m 거리에 있는 휘날리는 태극기를 시작으로 백운동 도로의 반 이상에서 128개의 태극기가 상시 휘날리고 있다.

안내판은 2012년부터 조성된 태

와동

‘찾아가는 전통문화 콘서트’



안산시 단원구 와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월 20일 사세충렬문공원에서 ‘찾아가는 전통문화예술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와동 마을주민 공동체 ‘기왓골마을학교’ 주관으로 열린 찾아가는 전통문화예술 콘서트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2019년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의 전통문화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금장 이수자 박기형 선생의 대금공연을 비롯해 단원국악예술단, 아트벨라르페, 안산청년국악예술단, 캘리시대 대북 퍼포먼스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아울러 추억의 떡메치기, 도리깨질, 다듬이질, 죽방울 놀이 등 전래놀이 무료 체험과 전통 부채 만들기, 통나무문패, 솥대, 청사초롱, 팽이 등 전래놀이기구 만들기가 부대행사로 마련돼 곳은 날씨에도 주민들이 전통문화예술 공연과 전래놀이 체험을 즐기며 가족들과 뜻깊은 주말을 보냈다.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생명지킴이…너와 행복하게 ‘살구’싶다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마스코트 ‘살구’와 “괜찮니?” 자살예방 캠페인

**안산시민 모두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살구가 되어주세요.
당신은 안산의 살구. 안산의 생명지킴이**

안산시자살예방센터(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우울’, ‘어두움’, ‘무서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스코트 ‘살구’를 제작했다. 살구는 몸길이 5~6cm 멧발쥐로 꽃가루를 먹고 산다. 가슴에는 사랑(하트)를 품고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트 모양의 꼬리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생명지킴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랑스러운 마스코트다.

자살예방센터는 시민에게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마스코트 살구를 활용해 리플렛, 홍보용품, 영상 등을 제작해 캠페인에 나섰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도서관과 관공서, 서점, 대학가에 우체통과 엽서 비치함을 마련해 주민들이 지인에게 엽서로 안부를 묻으며 ‘괜찮니?’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안부를 묻는 일상의 질

문은 사소해 보이지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사랑을 담고 있다. 우체통에 넣어진 엽서들은 센터가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발송한다. 자살 예방의 달인 9월에는 엽서를 보낸 시민 600명에게 소정의 선물도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릴레이 영상으로 이어지는 ‘괜찮니?’ 영상 캠페인은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촬영한 영상은 올 연말까지 시 홈페이지와 보건소, 참여기관, SNS, 경기G버스 등에 공개해 생명존중·자살예방 분위기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종하 센터장은 “우리가 갖는 작은 관심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다”며 “자신을 지켜봐주는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누군가가 느낀다면 그 관심은 소중한 생명을 붙드는 훌륭한 끈이 된다”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자살예방센터(031-418-0123)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상록 · 단원 청소년수련관 가을학기 접수 시작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상록 · 단원청소년수련관은 9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유아 · 청소년 · 성인 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을학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크게 사회교육과 생활체육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유아를 대상으로는 창의미술, 유아 원어민 영어수업, 보드게임, 독서교육 등이 진행되며, 청소년 프로그램은 제과제빵교실, 미술, 영어, 수학, 중국어, 한국사, 논술, 악기수업 등이 마련됐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캘리그래피, 난타, 사진, 수채화, 악기수업 등이 진행된다.

생활체육 분야는 유아를 대상으로 축구교실, 키즈요가 등

이 진행되며, 청소년 프로그램은 농구교실 · 펜싱 · 아크로바틱, 성인을 대상으로는 배드민턴 · 밸리댄스 · 다이어트댄스 수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가을 정규강좌는 기존 인기강좌를 재구성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됐다.

신규회원 수강신청은 8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상록 · 단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온라인 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단, 접수 당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인터넷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접수 기간 이전에 홈페이지 회원으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또는 상록청소년수련관(031-412-1724), 단원청소년수련관(031-412-179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화정영어마을, 찾아가는 원어민 수업

중 · 고등학교 8개교 진행… 학생 · 교사들 큰 호응



안산시가 설립하고 안산대학교가 운영하는 안산화정영어마을은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끝으로 안산시 관내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Hi! English 프로그램’ 1학기 수업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학생들의 영어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원어민 교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수업은 올 3월26일 반월중학교를 시작으로 안산시 총 8개 학교에서 진행됐다.

원어민 교사는 각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만나 영어권 국가의 교육제도와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해 가르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영어학습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안산시 청소년들이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취지다.

최대 30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수업은 원어민 교사의 지도로 진행되며,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일환으로 수업료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한 스피킹연습과 문화 · 학교생활 탐구로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해 수업을 받은 8개 학교 222명의 학생의 평균 만족도는 89.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화정영어마을 관계자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2년 동안 운영하며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호응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안산시 청소년들이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Hi! English 프로그램 신청 및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안산화정영어마을(031-484-6100)로 문의하면 된다.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김동규 의장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등에 따른 시정에 만전 기해줄 것” 당부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2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총 3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달 7일부터 26일간 진행된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바우나)는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도 ‘안산시 병역명목가 우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고,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했다.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표결 끝에 보류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종길)는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9건을 원안 가결한 데 이어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의 경우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총 2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4개 상임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시 집행부가 신속히 시정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과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명훈)는 이들 안건에 대해 시정요구사항 16건을 첨부해 원안 가결 처리했다. 예결위가 결산 심의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회는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김동규 의장은 산회에 앞서 “26일 간의 회기에 적극적으로 임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아울러 집행부 측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각 안건별 시정 및 부대의견에 대해 처리결과가 신속히 보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열린 의회교실’, 경안高 학생들 참여

7월 17일 학교 사회 참여 동아리 소속 학생 11명 의회 방문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운영 중인 ‘열린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경안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경안고 3학년 학생 11명과 인솔교사는 17일 오후 의회를 방문해 ‘의원과의 대화’와 ‘알기 쉬운 지방의회 교육’, 퀴즈로 알아보는 ‘도전 의회 골든벨’ 등으로 꾸려진 열린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성실히 소화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생활주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학습형 동아리 ‘경안고 사회 참여 동아리’ 소속으로, 이날 처음 방문하는 시의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던 듯 프로그램 중간 중간 다양한 질문들을 이어갔다.

시각원이 갖춰야 할 덕목이나 시의원으로서 보람됐던 일,

조례안 제정·공포 절차를 묻는 등 두 시간가량 진행된 ‘열린 의회교실’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의회에서는 김동규 의장과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이 연이어 학생들을 맞았다. 의원들은 학생들이 생활에서 경험할 만한 사례를 들어 의회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는가 하면 의원실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같이 돌아보는 등 미래 세대와의 소통에 열의를 보였다.

이날 의장실에서 학생들을 맞이한 김동규 의장은 “지방의회가 발전하려면 청소년 등 사회 각계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지역 사회의 거리를 좁히는 의정활동을 펼쳐는 데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정종길 위원장도 이번 견학에 대해 “시의회가 어떠한 일



경안고등학교 학생들이 ‘열린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을 하는지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고, 나정숙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민주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의회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갈대습지 경계 특위, 유사 사례 벤치마킹 위해 500km 뛰었다

7월 16일 전북 고창군 방문해 유사 쟁송 사례 벤치마킹

안산시의회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태순)가 최근 시계 분쟁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차 전라북도 고창군을 방문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벤치마킹에는 특위 소속 박태순, 이기환, 윤석진, 한명훈, 김진숙, 이진분 의원과 안산시 관련 부서인 환경정책과·자치행정과·해양수산과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갈대습지공원 일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인접 도시와의 경계 조정을 명확히 하고자 올 3월 구성된 특위는 그 동안 3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현장활동을 진행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도 왕복 500km가 넘는 거리의 지역을 마다하지 않고 다녀오면서 필요 자료 수집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위 일행은 먼저 분쟁 대상지였던 고창군의 ‘곰소만(灣)’과 ‘해상풍력실종단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곧이어 고창군청으로 이동, 해상 경계 쟁송 실무를 담당하고 고창군 관계자들과 사례 청취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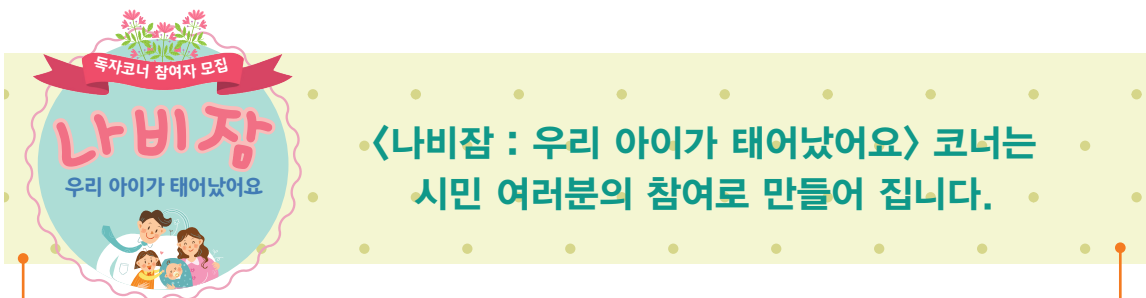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들은 그 동안 수집한 타시군의 사례 및 갈대습지공원 미개방 지역의 특성을 고창군 사례와 비교·분석하였으며, 헌법재판소법 제4절에 규정된 권한쟁의 심판 절차 진행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고창군 사례를 통해 현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인적 자원과 시간이 투입됐음을 인식하고, 시 집행부와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협조해 내실 있는 준비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박태순 특위 위원장은 “갈대습지 특위는 이번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활동기간인 오는 10월 말까지 시계 조정 문제는 물론 국내 최초의 대규모 인공습지인 갈대습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사 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기의 웃음소리

아기이름: 이선화 출생년월: 2018년 7월 태명: 선화공주
태몽: 어머니가 장마철 시골에서 농촌 집 지붕에 올라온 미꾸라지를 한 소쿠리 담았다네요.

“까릉~” “까르르” “깹~ 까르릉~ 까깹”

아이가 누워서 내 얼굴을 보며 웃는 이 소리. 너무 행복해서 얼른 한 장 찍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워 본 부모라면 거의 매직에 가까운 행복 사운드에 취해보지 않은 분 없을겁니다. 아빠들의 퇴근을 재촉하는 퇴근사운드이기도 하죠. 아빠들을 딸바보로 만들기도 하고요. ㅎㅎㅎ.

아내가 아이를 낳기 전부터 유난히 입덧이 심하여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느닷없이 참치회덮밥이 먹고싶다거나 하는.... 아이가 기분이 좋아 자연스럽게 내는 즐거움의 표현이니까요.

그런 역경(?)을 딛고 낳았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참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네요. 아픈데 없고, 까탈스럽지 않고, 우유도 잘 먹고요. 쑥쑥 자



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 이기현(단원구 광덕1로)

귀염뽀짝 개구쟁이 사랑둥이 내 아가

아기이름: 김이현 출생년월: 2018년 8월
태명: 뽀꾸 태몽: 시아버지가 2미터짜리 잉어를 낚으시는 꿈



벌써 우리 이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하기까지가 마치 옛 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제 막 돌을 바라보고 있는 이현이는 요즘 혼자 서기 연습을 하고 있

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을 가누고 뒤집기에 되집기 배밀이에 네발기기하는 순간순간마다 저는 새로운 미션수행하듯 아이 발달단계에 맞춰 대응해줘야했죠^^ 이제 걷기 시작하면 어떤 또 다른 미션이 주어질 지 상상도 안되네요. 그래도 혼자서 끙끙대며 서기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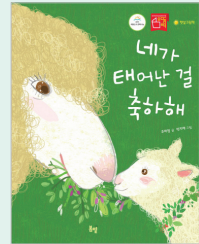
아기를 낳고 키우기 전에는 그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미처 알지 못했는데 직접 키워보니 하루하루 다른 모습으로 엄마맘을 심쿵하게하네요 하지만 그마만큼 또 엄마에게 힘듦과 시련을 주기도하죠,,, 저희 부모님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들이 존경스러워요. 특히 아이 둘 셋씩 키우는 집을 보면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요^^ 아기키우는 모든 엄마아빠분들! 으쌔으쌔 파이팅하세요!

• 이희진(단원구 초지동)

책 읽는 안산 / 8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모두를 위한 그림책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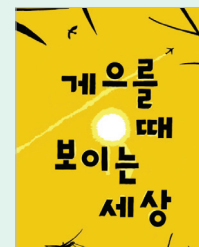


내가 태어난 걸 축하해

저자 주하정 / 출판사 봄별

엄마는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엄마는 ‘나’를 280일 동안 꼬옥 안고 품어 주었습니다. 엄마의 숨을 나누고, 엄마가 먹는 음식을 나눠 먹고, 엄마와 함께 울고 웃으며 280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태어난 걸 축하해’는 바로 엄마의 행복한 기다림 속에 태어난 아기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랑스런 그림책입니다.

청소년



게으를 때 보이는 세상

저자 우르술라 팔루신스카 / 출판사 비롱소

이 그림책은 간결한 글과 강렬한 색감의 일러스트레이션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감각적인 그림책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보내는 작가 특유의 유머러스한 메시지가 담겼다. 책을 열면 모두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드러누워 마음 편히 하늘을 바라볼 때만 비로소 보이는 ‘게으를 때 보이는 세상’이 펼쳐진다.

성인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

저자 이상희 외 / 출판사 이봄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은 시인이자 그림책 작가인 이상희, 일간지 기자 최현미, 출판평론가 한미화, 동화작가이자 아동문학평론가인 김지은 네 사람이 ‘그림책’을 통해 어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책이다. 그림책은 어린이들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에게 어여쁘고 다정한 세계로 들어올 것을 권하고, 그림책을 읽고 싶지만, 어떤 것부터 읽어야 할지 망설이는 어른들에게 어떤 책을 언제 읽으면 좋은지를 말해준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독자
투고

아내는 남편의 고향

결혼기념일을 맞은 아내를 즐겁게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놓고 친구들의 저녁모임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현금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이어 보석, 옷, 화장품이 꼽혔다. 모두 만만찮은 비용이 필요한 품목들이었다.

저렴하게 감동시키는 선물을 고민해보자고 했다. 꽃이 우선 나왔다. 빨간 장미꽃이 여전히 아내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이라는 데 생각이 같았다. 그날 토론은 거기에서 끝났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어봤다. 그런데 아내는 의외로 소박하게 나왔다. “하나도 안바랄테니 제발 술 먹는 것 자제하고, 가끔 청소나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아서 우리 마누라에게 엄청 비싼 무언가를 해준 적도 없기에 정말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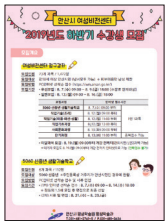
의외로 너무 소박한 답변이어서 “그 정도냐”고 했더니 그제야 본심을 내비쳤다. “A아주머니는 남편이 하루 1시간씩 정성스레 발마사지를 해준다. 제대로 하기 위해 바쁜 중에도 지압을 배웠다더라”며 뽐췄었다. 아내를 감동시키는 데 필요한 정성과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지는가 보다.

그 뒤 모처럼 평일 쉬는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청소며 설거지를 해놓았다. 진공청소기로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온갖 먼지를 빨아들이고, 화장실의 누리끼리한 부분도 락스로 박박 문질러 대니 반짝거리며 윤기가 났다. 물론 악취도 사라졌다. 제법 신경을 쓰다 보니 설거지와 청소하는데만 꼬박 두 시간 가까이 걸렸다.

이정도면 아내가 평소에 하는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잡혔다.

집안일을 하다 보니 문득 예전에 아내가 투덜거리며 했던 말이 죄다 떠올랐다. 결혼 초기에 부부싸움을 할 때면 아내는 항상 날더러 “평일에는 화식과 야근한다고 늦게 오고, 주말에는 피곤하다고 잠만 자고, 애 보라고 하면 5분 안고 있다 팔 아프다고 내려놓지를 않나, 어쩌다 청소기 한 번 돌려주면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애랑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2019년도 하반기 수강생 모집



- ◇ 모집인원 : 73개 과목 / 1,472명
- ◇ 모집대상 : 만18세 이상 안산시민(남녀모두 가능)
- ◇ 신청기간 : 8. 7(수) ~ 8. 16(금)
- ◇ 모집방법 :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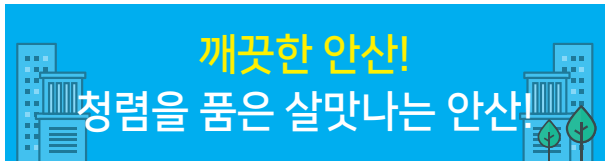
◇ 교육기간 : 9. 2(수) 09:00 ~ 12. 27(금) 18:00
※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https://wm.ansan.go.kr/>) 공지사항 참조

제14회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개최



- ◇ 기간 : 2019. 8. 15(목)~8. 18(일)
※ 안산시 반달섬 대회기간 : 2019. 8. 17(토) ~ 8. 18(일)
- ◇ 장소 : 안산시 반달섬, 시흥시 거북섬, 화성시 전곡항, 시화나래조력공원

- ◇ 주최 :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 ◇ 주관 :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k-water, 한국관광공사
- ◇ 개최종목 : 정식종목 4, 번외종목 4, 체험종목 35
(안산시는 핀수영 · 카누 · SUP보드 · 요트/스노클링강습 · 수상오토바이 등 운영)
- ◇ 문의 :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3695)



생생한 일자리 정보!

희망과 열정이 있는 취업마당! 안산시가 도와드립니다!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 ◇ 일시 : 2019.8.1.(목) 14시~16시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2층)
- ◇ 참여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구직자
- ◇ 주최/주관 : 안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 제공,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 마련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931/2882)

안산99취업광장

- ◇ 일시 : 2019.8.19.(월) 14시~16시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 ◇ 주최/주관 : 안산시 / 안산고용복지+센터
- ◇ 내용 : 구인 · 구직 현장면접에 의한 채용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 (031-481-2277/2919)



제16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 불을 끄고 별을 켜다

- ◇ 일시 : 2019.8.22.(목) 오후 6시~8시
- ◇ 장소 : 안산문화광장
- ◇ 내용 : 에너지의 날 유공자 표창, 기념 공연 등
- ◇ 문의 : 안산녹색소비자연대(031-485-1199)

그랑꼬또 와인 페스티벌



- ◇ 기간 : 2019. 8. 30(금)~8. 31(토)
- ◇ 주최/주관 : 안산시 · 그린영농조합법인
- ◇ 장소 : 그랑꼬또 와이너리(안산시 단원구 빼곡산길 107(대부북동))
- ◇ 내용 : 와인, 대부포도 등 농특산물 직거래, 문화공연, 와이너리투어, 와인시음 등
- ◇ 문의 : 안산시 농업기술센터(031-481-2317)

2019 안산생생마라톤 대회



- ◇ 일시 : 2019. 9. 8(일), 오전 9시 (단, 풀코스는 오전 8시 출발)
- ◇ 장소 : 안산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일원
- ◇ 종목 : 4종목(Full, Half, 10km, 5km)
- ◇ 주최/주관 : 안산시체육회, 경기일보 /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육상연맹
- ◇ 기념품 : 안산다온상품권(5km : 5천원, 10km이상 : 1만원)
※ 대부포도축제장 및 안산관내에서 사용 가능
- ◇ 축하공연 :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
- ◇ 경품 : 자동차(액센트) 및 1천500만원 상당 다수의 경품제공
- ◇ 참가신청 : 홈페이지에서 신청(www.ansanrun.com)
- ◇ 신청문의 : 031-481-3539~40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



- ◇ 기간 : 상시
- ◇ 대상 : 참여 희망 학교 및 단체 (최소 출발인원 15명)
- ◇ 운영방법 : 주 4회(4시간 소요)
※ 대상에 따라 탄력적 운영
- ◇ 체험내용 : 친환경 전기버스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현장 견학 및 체험, 에너지 절약 교육 등(에너지 해설사 운영)
- ◇ 견학코스 : 안산갈대습지, 시화조력 발전소 등 8곳
※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안산환경재단(031-599-9419)로 문의 바랍니다.

안산시 청소년 중국문화교류



- ◇ 모집일정 : 2019.7.31(화)~8.13(화)
- ◇ 기간 : 10.25(금)~10.29(화) / 4박5일
- ◇ 대상 : 관내 14~16세 청소년 20명
- ◇ 장소 : 중국 연태시(장보고 유적지), 상해시(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디즈니랜드)
- ◇ 내용 : 사전 · 사후워크숍, 연태시 교류방문, 상해 역사문화 탐방 등
- ◇ 비용 : 1인 60만원(시보조금 1인 75만원)
- ◇ 신청 : 방문접수 및 이메일접수 (polo7766@ansanyouth.or.kr)
- ◇ 문의 : 단원청소년수련관 활동문화팀(031-412-1791)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참조 또는 1577-2514(031-501-0340, 0033)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ARS 전화,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 등
- ◇ 문의 : 상록구 세무1과(031-481-5190),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5)



< PC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 안산시의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 실시

- 제 256회 임시회 -
기간: 2019. 8. 26.(월) ~ 2019. 9. 11.(수)

시청방법

1. vod.ansan.go.kr 접속!
2. 생방송 보기 클릭! 지난 방송도 볼 수 있어요!